

보도 일시	2021. 11. 12.(금) 09:00	배포 일시	2021. 11. 12.(금) 09:00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선영 (044-203-3211)
		담당자	사무관 이혜영 (044-203-3218)

새로운 일상 시대, 지역신문의 위기와 기회를 논하다

- 11. 12.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21 지역신문 학술대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류한호),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과 함께 11월 12일(금),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21 지역신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학술대회는 지역 언론인과 학계, 지역주민 등이 함께 모여 지역 언론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새로운 일상(뉴노멀), 지역신문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매체(미디어) 시장 속에서 경영난에 직면한 지역신문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에 매체(미디어)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환경 변화를 지역신문 미래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년간, 지역신문 우수사례 27건 공유

먼저 지역신문 4개 분야 ▲ 보도 및 편집, ▲ 지역신문 혁신사례 및 미래전략, ▲ 독자 친화형 및 지역공헌, ▲ 위기관리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우수사례 27건을 공유해 지역신문 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확인

하고, 지난 1년간의 지역 언론 발전을 되새겨본다. 올해 우수사례는 공모를 거쳐 선정했으며, 그중 13건에는 문체부 장관상(2점) 및 지역신문발전위원장상(11점)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독자의 눈’ 공모전 본선에 오른 작품도 공개한다. 이 공모전은 지역신문의 상생과 활성화를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하고, 젊은 독자가 바라보는 지역신문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체부 황성운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지역신문 관계자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1 지역신문 콘퍼런스’ 계획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선영 (044-203-3211)
		담당자	사무관	이혜영 (044-203-3218)
<공동>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언론팀	담당자	팀장	송남수 (02-2001-7821)
		담당자	팀원	서윤정 (02-2001-7826)



□ **행사 개요**

- (행사명/주제) 2021 지역신문 콘퍼런스 / ‘뉴 노멀, 지역신문의 위기와 기회’
 - (목적) 지역신문 지원사업의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콘퍼런스 개최
 - (일시/장소) '21. 11. 12.(금), 12:30~18:00 /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 (주최/주관/후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한국언론진흥재단 / 문화체육관광부
 - (참석) 지역신문 언론인, 지역민·시민기자, 언론에 관심 있는 청년 등
 - (주요 내용) 기획 세션, 우수사례 발표, 부대전시, 시상식 등
- *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고, 필요 최소 인원만 현장 참석 예정

□ **세부 행사 계획**

시간	구분	비고
12:3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세션 ○ 기획세션 ○ 청년 대상 공모전 ○ 특별세션 	분야별 지역신문 우수사례 발표 ‘뉴 노멀, 지역신문의 위기와 기회’ 주제발표 ‘미래독자의 눈’ 공모전 본선 경쟁PT 전북지역 언론사와 함께하는 지역현안 관련 강연 및 토론
17:00~1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 인사말, 축사 등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17:2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상식 ○ 폐회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2점), 지역신문발전위원장상(11점)

□ **기대효과**

- 지역신문 우수사례 공유 및 지역언론계와 시민·청년 간 교류를 통해 지역 언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지역신문의 활성화에 기여